

호치민시 인민위원장 주최 만찬답사

레 탄 하이 인민위원장 내외분, 그리고 귀빈 여러분,
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나는 이번에 베트남과 인도 국민방문, ASEM 정상회의를 마치고 또 다른 일정으로 오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인도차이나의 중심도시 호치민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베트남 고도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호치민은 듣던 대로 활기에 차 있습니다. 호치민 전 주석의 이름처럼 베트남 경제에 '빛을 가져온 도시'라고 생각합니다.

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곳에 몰리고 있습니다. 이처럼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어 온 인민위원장님을 비롯한 호치민 시민 여러분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.

귀빈 여러분,

나는 어제 하노이에서 쯔 득 르영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. 이미 우리 두 나라는 수교 당시에

비하면 교역량은 6배, 투자는 22배나 증가했습니다. 특히 호치민은 7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을 만큼 그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.

앞으로 우리 두 나라간 협력가능성은 매우 큽니다. 에너지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, 정보통신이 그 대표적인 분야가 될 것입니다.

호치민이 이런 양국 협력을 앞장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.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·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곳에 있는 우리 기업과 동포들에 대한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드리며,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호치민시의 발전과 인민위원장님 내외분을 비롯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.

감사합니다.